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박윤희

승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Yun-Hee Park

Associate Professor, The General Education of Baird Colleg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유연성을 제외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강화를 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strengthen career adaptability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data collected from 256 students in junior and senior at University in Seoul were verified by mediating effec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it was proposed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o enhanc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Adaptability, Mediating Effect

1. 서론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나타났고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로는 '조직·직무 적응 실패'(49.1%)로 보고되었다[1]. 이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무 적응을 위한 진로적응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직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으로 직무 수행과 같은 예측 가능한 일과 직업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를 의미한다[2]. 이러한 진로적응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 후 직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은 선택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인 적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3].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 차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진로선택과 이후 선택사항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다[4].

이러한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21세기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계획된 우연기술이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이 진로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우연한 사건을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5].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6,7].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확실성은 직업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자연스럽게 진로적응성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취업 후 직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본론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고 적응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직업적응과 진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다[8]. 진로적응성은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과 자신감(confidence)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관심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지각 정도의 의미하며 진로적응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통제는 진로 결정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책임감을 의미하고 호기심은 자신과 직업 세계 간의 적합성을 탐색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2].

진로적응성이 직업현장에서의 적응을 강조한다면,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9].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과 목표달성행동으로 구성된다. 정보수집행동은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자기이해에 대한 정보와 직업현황, 직업전망, 입직방법, 승진경로, 근무환경과 같이 스스로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다. 도구준비행동은 입직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나 교재를 구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실천적인 행동이다. 목표달성행동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동으로 면접 준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채용박람회 참가, 현장실습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4].

최근 직업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합리적 예측중심의 직업선택 접근방법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10]. 이에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직업선택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 가치관, 욕구, 흥미에 초점을 두고 직업 또는 직무 매칭을 강조해 온 전통적 진로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11]. 계획된 우연기술은 그 의미가 상반된 계획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계획된 우연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진로선택이 항상 계획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를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5].

이러한 계획된 우연기술은 호기심(Curiosity), 인내심(Persistence), 유연성(Flexibility), 낙관성(Optimism)과 위험감수(Risk Taking)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5].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기회들은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내심은 실패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성은 상황이나 태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가능성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5].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2,13]. 또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7]. 특히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1, 18], 낙관성, 호기심, 인내심 요인의 순서로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반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인내심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수의 질적연구를 통해서만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상관을 보고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나 코칭 및 상담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계획하지 않은 우연한 정보수집이나 교육 등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10,20]. 이는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진로준비행동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발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근거

가 되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로적응성 강화의 효과를 추론한 김종상[21]은 여행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의 호기심, 인내심 등이 발휘될 때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상[21]의 연구는 본 연구 수행에 중요한 선행연구로서 가치를 갖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본 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차이이다.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구대상자가 상이한 면이 있다. 둘째, 여행사 업무에 맞게 수정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상이한 진로적응성 검사도구를 사용한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5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진로적응성 측정도구(Career Adapt-ability Scale: CAAS)[22]는 Tak[23]이 번안하고 정지은과 정철영[24]

이 개정, 김미정[1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성 측정도구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과 진로 자신감의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김봉환[4]이 개발하고 임은미와 이명숙[25]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준비 행동 측정도구는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과 목표달성 행동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85로 확인되었다.

계획된 우연기술 측정도구(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26]는 공동개발자인 장선희[2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측정 도구는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과 위험감수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확인되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값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통한 매

개효과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넷째, 매개효과 분석 후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25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3학년 학생 132명, 4학년 학생 124명이며 남학생이 164명, 여학생이 92명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전공에 대해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35명, 경영·경제·법·사회계열이 76명, 자연과학계열이 25명, 공대·IT계열이 120명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 종속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3.422(SD .638),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평균은 4.098(SD .495), 그리고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평균은 3.722(SD .462)로 나타났다. 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왜도는 $-0.475 \sim 1.138$, 첨도는 $-0.329 \sim 1.118$ 사이에 존재하여 절대값이 2이하이므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N=256)

	1	2	3	3-1	3-2	3-3	3-4	3-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2. Career Adaptability	.537***	1						
3. Planned Happenstance Skills	.419***	.680***	1					
3-1. Curiosity	.274***	.452**	.683***	1				
3-2. Flexibility	.216**	.280*	.569***	.499***	1			
3-3. Persistence	.352**	.537***	.703**	.261**	.167*	1		
3-4. Optimism	.380***	.645***	.768***	.346**	.189**	.590***	1	
3-5. Risk Taking	.345**	.444**	.751***	.319**	.221**	.564***	.489***	1
A(Average)	3.422	4.098	3.722	3.788	3.697	3.806	3.844	3.484
SD(Standard Deviation)	.638	.495	.462	.605	.876	.582	.753	.695
Skewness	-.165	-.475	.138	-.453	-.247	-.288	-.394	-.251
Kurtosis	.236	1.118	.408	.437	-.329	.040	-.248	.408

*p<.05, **p<.01, ***p<.001

Table 2. The effects on Career Adaptabilit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	SE	β	t	R ²	F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315	.049	.432	6.411***	.328	41.017***
Tool Preparation Behavior	.106	.043	.161	2.476*		
Goal Achievement Behavior	.035	.044	.056	.816		
Total	.423	.042	.537	10.144***	.288	102.899***

*p<.05, **p<.01, ***p<.001

Table 3. The effects on Career Adaptability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B	SE	β	t	R ²	F
Curiosity	.164	.044	.200	3.718***	.513	52.637***
Flexibility	.058	.038	.079	1.529		
Persistence	.180	.051	.211	3.517**		
Optimism	.275	.038	.418	7.260***		
Risk Taking	.028	.040	.039	.694		
Total	.730	.049	.680	14.792***	.463	218.797***

*p<.05, **p<.01, ***p<.001

4.3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37,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28.8%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정보수집행동($\beta=.432, p<.001$)과 도구준비행동($\beta=.161, p<.05$)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680,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46.3%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호기심($\beta=.200, p<.001$), 인내심($\beta=.211, p<.01$)과 낙관성($\beta=.418, p<.001$)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4.4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4.4.1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계획된 우연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1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7.6%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37-.305$),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2)은 54.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7.452(p<.001)$ 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함께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4.4.2 호기심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호기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7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7.5%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

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호기심을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beta=.537-.447$)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은 38.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091(p<.001)$ 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호기심이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4.4.3 유연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매개변수인 유

연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06, p>.05$).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유연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beta=.537-.513$)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연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2)은 3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1.511(p>.05)$ 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lanned Happenstance Skills	.308	.042	.419	7.365***	.176	54.244***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 → Career Adaptability	.241	.037	.305	6.497***	.540	148.248***
		.593	.050	.552	11.750***		
Sobel test		Z = 7.452(p<.001)					

*p<.05, **p<.01,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uriosity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uriosity	.264	.058	.274	4.545***	.075	20.661***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riosity → Career Adaptability	.352	.040	.447	8.737***	.389	80.410
		.270	.042	.329	6.443***		
Sobel test		Z = 4.091 (p<.001)					

*p<.05, **p<.01,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Flexibility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lexibility	.114	.067	.106	1.702	.011	2.898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lexibility → Career Adaptability	.404	.041	.513	9.871***	.339	64.817***
		.166	.038	.228	4.388***		
Sobel test		Z = 1.511 (p>.05)					

*p<.05, **p<.01, ***p<.001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4.4.4 인내심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인내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인내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35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2.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인내심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beta=.537-.398$)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2)은 42.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332(p<.001)$ 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인내심이 함께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4.4.5 낙관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낙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80,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4.4%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낙관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beta=.537-.341$)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2)은 51.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784(p<.001)$ 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낙관성이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4.4.6 위험감수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Table 7. Mediating Effect of Persistence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ersistence	.326	.054	.352	5.987***	.124	35.865***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sistence → Career Adaptability	.313	.040	.398	7.811***	.427	94.113***
		.338	.043	.397	7.811***		
Sobel test					Z = 5.332 (p<.001)		

*p<.05, **p<.01, ***p<.001

Table 8.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Optimism	.455	.070	.380	6.543***	.144	42.811***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ptimism → Career Adaptability	.269	.037	.341	7.213***	.516	134.885***
		.339	.031	.516	10.911***		
Sobel test					Z = 3.784 (p<.001)		

*p<.05, **p<.01, ***p<.00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Risk Taking

Step		B	SE	β	t	R ²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Risk Taking	.381	.065	.345	5.854***	.119	34.268***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isk Taking → Career Adaptability	.344	.042	.436	8.160***	.364	72.455***
		.209	.038	.296	5.494***		
Sobel test		Z = 4.656 (p<.001)					

*p<.05, **p<.01, ***p<.001

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위험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4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1.9%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위험감수를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beta=.537-.436$)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2)은 3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656(p<.001)$ 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위험감수가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효과 간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세 변수들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며[3,12,1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간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13-17]. 반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과는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11,18].

또 진로준비행동은 계획된 우연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유추한 질적연구결과[10,20]와 양적연구결과[2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에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영향력을 독점하지 않고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함께 작용할 때 진로적응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유연성을 제외한 호기심, 인내심, 낙관성과 위험감수 요인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태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유연성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는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

연기술과 그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인내심 등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한 김종상[2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종상[21]의 연구는 본 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차이점들은 본 연구결과가 김종상[21]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늘날 대학생들은 취업 후 조기퇴사의 경험으로 인해 진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직업세계의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소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당국과 교수자들은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지원하고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턴십, 직장체험과 현장견학 등의 현장연계 활동과 직업인 초청 강연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진로목표 달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하고 우연한 기회를 자신의 진로선택과 준비를 위한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 후 직업현장에서 적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취업 후 직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와 더불어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 H. Park. (2016. 06. 06). "28% of New Graduate Staff Leaving within one year of joining... Employment Status Survey for New Employees of KEF". <https://www.g-enews.com>.
- [2]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Brown S, D., & Lent, R. W.(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J: John Wiley & Sons, Inc.
- [3] S. B.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49-68.S.
- [4] B.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3.
- [6] Bornat, J., Henry, L., & Raghuram, P. (2011). The making of careers, the making of discipline: luck and chance in migrant careers in geriatric medicin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 342-350.
- [7] Bright, E., Pryor, R. G.,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561-576.
- [8] K. Y. Jang & B. W. Kim (2011).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Counseling*, 12(2), 539-558.
- [9]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0] E. Y. Son (2012). Effects of Happenstance in the Vocational Achievements of Female Career Counseling Professionals in 40'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437-453.
- [11] M. A. Lee & B. W. Kim (2017). The difference in career adaptability, career optimism and job satisfaction by typology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Korean work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1), 287-306.
- [12] W. J.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Autonomy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 [13] H. J. Park. (2016).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in young job-seekers*. MA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 [14] N. Y. Byun. (2017). *The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 thesis, Dankook University.
- [15] Y. J. Sim. (2018).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Happenstance Coping Skills of College Students*. M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16] S. H. Yoo. (2016).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6(3), 149-168.
- [17] Y. S. Yun. (2019). *The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oderated by Planned Happenstance Skills*. MA thesis, Hoseo University.
- [18] M. J.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Belief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 thesis, Ajou University.
- [19] J. J. Jo & J. Y. Lee.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Students' Parental Nurturing Attitude, Self-Leadership,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Adapta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8(1), 79-108.
- [20] S. O. Shin., S. Y. Park., & S. H. Lee. (2015). Qualitative Research on Happensta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Coaches and Counselors in Career Transi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4(1), 1-27.
- [21] J. S. Kim. (2018). *Study on influence 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of Travel Agency Employees: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22]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61-673.
- [23] J. K. Ta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 [24] J. E. Jeong., & C. Y. Jyung. (2015).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1), 79-96.
- [25] E. M. Lim., & M. S. Le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s Counselling*, 1, 101-113.
- [26] B. Kim., S. H. Jung., S. H. Jang., B. Lee., E. Rhee, S. H. Cho., & S. H. Lee. (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239-253.
- [27] S. H. Jang. (2013). *Role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vocational engagement*. MA thesis, Korea University.
- [28]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박 윤 희 (YunHee Park)

[장학원]



- 1989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상학사
- 199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평생교육, 커리어코칭
- E-Mail : poohwinn@ssu.ac.kr